

미디어와 주변인을 통해 접한 자해 경험이 청소년 자해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보 라 김 성 연 이 동 훈[†]
석사과정 박사수료 교수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이 미디어와 주변인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사회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비자살적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3~19세 청소년 80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청소년 중 47.8~81.8%가 미디어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고, 28.6%~58.7%가 주변인을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미디어 유형 중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비자살적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유튜브, 노래가사를 통해 비자살적 자해에 더 자주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주변인과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비자살적자해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사회적 노출

*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21S1A3A2A02089682).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1112호, Tel : 02-760-0558, E-mail : dhlawrence05@gmail.com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19만 33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해·자살시도 비율이 2012년 11.4%에서 2021년 18.2%까지 증가하였다(질병관리청, 2023). 또한,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한 고립된 환경, 가중된 학업 스트레스 등은 청소년의 자살, 자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Tang et al., 2023).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 자해, 우울, 불안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은 학문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비자살적 자해는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된다(Nock, 2009). 자살은 비자살적 자해와 달리 죽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된 행위이며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된다(Harwood & Jacoby, 2000). 두 행동은 행동의 의도, 빈도, 치명성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지만, 일각에서는 자살의 의도가 없는 자해일지라도 자살과 공발할 수 있다는 관점이 보고되고 있다(Harris & Ribeiro, 2021). 예컨대, 한 연구에서는 친구나 가족의 자살시도나 자살로 인한 사망에 노출된 학생들이 자살시도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자해를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n et al., 2018). 이처럼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은 공통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상호 간 연관성을 갖는 행동이므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성연 등, 2023).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용어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비자살적 자해’를 이하 ‘자해’

로 통칭하고자 한다.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자해의 위험요인들을 포괄하여 자해가 유발되는 기제를 설명한 통합적 이론 모델(Nock, 2009)에서는 자해의 위험요인을 일반적인 위험요인과 특정위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인 위험요인은 자해, 음주, 섭식, 위험한 성행동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며, 특정위험요인은 여러 부적응적 행동 중 자해를 선택하도록 하는 요인을 뜻한다. 특정위험요인은 여러 가지 가설로 제시되는데, 그 중 사회학습가설은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을 수용하여 개인내적 및 대인관계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자해에 노출(exposure)될 경우 모델링을 통해 자해를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개인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해를 접하게 될 경우 감정의 전염성, 동조 압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서와 행동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해를 실제로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이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해를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는 현상을 Zerkowicz 등(2017)은 ‘자해의 사회적 노출(Social Exposure to Nonsuicidal Self-Injury)’로 정의하였다.

자해의 사회적 노출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청소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조 동기가 높아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자해, 자살 행동을 학습하고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Lewis et al., 2012). 실제로 자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유행하게 된 후 상담 현장에서 자해, 자살 위기 청소년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Lee et al., 2023). 온라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을 통해 자해를 직, 간접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자해를 학

습하여 실제 자해를 실행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Hasking et al., 2013).

자해의 사회적 노출과 관련된 연구를 개관한 Steele(2023)의 연구에서는 비임상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사회적 노출 연구 7편을 살펴보았는데, 7편의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주변인 중 친구가 자해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해의 사회적 노출과 관련한 16편의 연구를 문헌 고찰한 Jarvi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정신과적 증상 혹은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특정 개인이 자해 관련 정보에 노출될 경우 자해가 유발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자해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사회적 노출의 영향에 대해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미디어와 주변 대인관계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반해 기존 연구들은 친구, SNS와 같은 요인만을 특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이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이에 Steele(2023)은 친구, SNS와 더불어 자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미디어, 주변 대인관계 양상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노출을 측정할 시 실태문항을 활용하여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자해와 자살이 구분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APA, 2022)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자해 노출은 대부분 자해(self-harm)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확인된 정보가 비자살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살성 정보와 혼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자살 정보는 ‘자해 유발 정보’로, 자해

정보는 ‘잔혹, 혐오 정보’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규제 방법도 다른 만큼 차등을 두고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이정현, 2023)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해와 자살이 공통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 연관될 수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해의 사회적 노출이 자해뿐만 아니라 자살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사회적 노출 척도(Zelkowitz & Cole, 2014)를 통해 사회적 노출의 세부적인 유형을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자해를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해 행동’임을 명시하여 자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해의 사회적 노출이 자해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적 노출은 크게 미디어와 주변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세부적인 유형과 방법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Zelkowitz et al., 2017). Zelkowitz 등(2017)은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으로 인터넷과 블로그, 노래가사, 영화, 뉴스, TV를, 주변인을 통해서 친구 혹은 친한 사람을 알거나 자해를 직접 목격하거나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자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미디어 유형은 다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인 인터넷, 블로그, SNS, TV와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인 노래가사, 영화, 뉴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블로그, SNS, TV와 같은 매체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며, 최신 유행을 접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자해나 자살을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자해 이력이 있는 청소년은 자해 이력이 없는 청소년보다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Heath et al., 2010). 또한, 인터넷에서 자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본 적이 있는 청소년들은 이를 본 적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자해 생각이 1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tchell et al., 2014). 블로그와 같은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해 이야기를 읽고 스토리텔링이 되었을 때는 자해가 강화되거나 자해가 일반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Lewis & Baker, 2011), 특히 개인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자해가 정서적 고통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행위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Whitlock et al., 2009a). 이와 더불어 SNS는 개인의 고민과 감정을 표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자해 경험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자해를 접함으로써 자해와 자살행동의 위험도 존재할 수 있다(Daine et al., 2013; Tseng & Yang, 2015). 청소년 연구에 따르면, 자해 집단은 비자해 집단보다 SNS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자해나 자살 관련 콘텐츠를 검색하는 경향이 있으며(김소정, 고그림, 2020), SNS의 자해 인증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콘텐츠는 자해, 자살 행동을 유발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Brown et al., 2018; Whitlock et al., 2009a). 또한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자해, 자살, 성폭력 등의 자극적인 정보가 포함된 TV시리즈가 루머의 루머(13 reasons why)가 방영된 이후 심각한 자해와 자살 행동이 증가했으며(Plager et al., 2019; Sinyor et al., 2019), 약물 과다 복용 장면을 담은 TV 프로그램 방영 후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17% 증가한 사례도 있다(Hawton et al., 1999). 청소년의 15.1%가 TV 프로그램에서 자해를 알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Nixon et

al., 2008)에 비추어봤을 때, 자해를 다룬 TV 프로그램이 실제 자해, 자살을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유형인 노래가사, 영화, 뉴스에서 다루지는 자해 또한 자해,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방영된 고등학생이 출연한 방송에서 자해의 흔적을 바코드에 비유하여 자해 경험을 담고 있는 음원이 공개된 후 청소년 자해와 자살문제가 급증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보고되었다(Lee et al., 2023). 영화의 경우, 자해를 주제로 한 영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이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고 있는데, 자해를 주제로 한 영화를 자주 접할수록 자해 시도와 더욱 심각한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Lewis & Seko, 2016). 반면, 자해를 주제로 한 영화에 노출되는 것이 자해 가능성 혹은 빈도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어(Hasking & Rose, 2016),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자해 내용이 자해,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또한 확인되고 있다(Pirkis, 2009).

주변인을 통한 노출은 주변인 유형과 노출되는 방법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해를 접할 수 있는 주변인 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친구, 친한사람이 있다(Zelkowitz et al., 2017). 친구는 사회적 학습 및 모델링을 통해 그들의 행동,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박경은, 이동훈, 2024). 특히 청소년들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위에 자해를 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 자해를 효과적인 대처 전략으로 인식할 위험성이 높다(Nock,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71.6%의 청소년에게는 자해를 하는 친구가 있었으며, 자

해를 하는 청소년에게는 자해하는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Hasking et al., 2013; Vitor & Klonsky, 2018). 또한, 절반 이상의 참여자는 친구와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었다(Vitor & Klonsky, 2018). 중요한 것은, 자해를 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자해를 하도록 제안하거나, 친구의 자해 사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나 친구와 함께 자해를 한다고 보고한 참여자는 거의 없었지만(Vitor & Klonsky, 2018), 자해를 하는 친구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더 자주 자해를 하며 보다 심각한 자해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Schwartz-Mette & Lawrence, 2019; Vitor & Klonsky, 2018). 즉, 청소년은 자해를 하는 친구와 친한사람을 모방하여 자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자해를 하는 친구가 있을 경우 자해를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2.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sking & Rose, 2016).

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변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수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상과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자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주변인을 통해 노출되는 방법의 유형은 주로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누군가 자해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Zelkowitz et al., 2017). 청소년 사이에서 자해가 유행하면서 자해는 더 이상 특정한 개인이 지닌 행동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서 자해에 대한 대화가 더욱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자해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눌수록 자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asking et al., 2013). 또한, 타인의 자해 상처를 보는 것만으로 자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Prinstein et al., 2010)에 비추어봤을 때, 자해를 직접 목격하는 것 또한 자해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인을 통해 자해를 접하는 방식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연구에서는 친구나 가족의 자해에 노출되었던 사실이 이후 자살시도를 예측하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어(Mars et al., 2019)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의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해와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 관련 미디어 유형은 무엇이며,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해와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 관련 주변인 유형은 무엇이며,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주 사용자가 9세에서 24세 이하이며 청소년 비율이 90% 이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하였다. 본 설문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자해, 자살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팀은 자료수집에 있어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본 설문은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진행되었다. 청소년과 보호자는 청소년이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연구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았다. 또한 설문응답 과정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경우 즉시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청소년복지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연구참여에는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상품권으로 전환 가능한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3월~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SKKU 2021-12-012-001) 진행되었다.

설문에는 총 1,128명이 참여하였고, 996명(88.3%)이 최종적으로 설문을 완료하였다. 이 중 모든 응답을 하나의 번호로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답변 16부, 동일한 사람이 설문에 중복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7부를 제외하고 963명의 데이터를 선별하였다. 이 중 만 13~19세에 해당되는 804명의 자료를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도구

자해 기능 척도(The Functional Assessment of Self Mutilation [FASM])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loyd 등(1997)이 개발하고 권혁진(2014)이 번안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비자살적 자해 척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비자살적 자해의 방법과 방법별 빈도, 치료여부를 확인하는 문항, 두 번째 부분은 마지막 자해 시점 등 자해 행동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세 번째 부분은 비자살적 자해를 하는 이유 및 목적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의 방법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여 자해 방법이 한 가지 이상일 경우 자해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DSM-5-TR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 자해 경험이 있는 참여자만을 비자살적 자해 집단에 포함하였다(APA, 2022).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자살을 생각하거나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나요?’, ‘자살 시도한 적이 있나요?’의 문항에 예, 아니요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에 응답한 경우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마지막으로 시도한 시점을 주관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예’에 응답하고 12개월 이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참여자만을 각 집단에 포함하였다.

비자살적 자해의 사회적 노출 척도(Social Exposure to Nonsuicidal Self-Injury Scale [SENS])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해 사회적 노출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Zerkowicz와 Cole (2014)이 제작한 비자살적 자해의 사회적 노출 척도를 김지윤(201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ENS는 총 10문항으로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을 측정하는 5문항과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Luxton et al., 2012)를 추가로 포함하여 총 11문항으로 비자살적 자해의 사회적 노출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 인터넷 문항을 인터넷, 블로그, SNS로 수정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양방향적인 특성을 지닌 미디어를 포괄하여 설문하고자 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친한 사람 중에 자해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에서 여러 형태의 자해를 본 적이 있다’가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에서 자주 있다(4점)까지 4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해 노출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Zelkowitz 등(201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이 .85,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이 .79로 나타났으며, 김지윤(2019)의 연구에서는 각각 .87,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이 .85,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 수준이 .85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해의 사회적 노출이 자해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1.0과 Mplus 8.0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자해, 자살생각, 자살 시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자해비자살 집단은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모두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다. 자해 집단은 자해 경험은 있으나 최근 1년 이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집단이다. 자살생각 집단은 1

년 이내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해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시도 경험은 없다고 보고한 집단이다. 자살시도 집단은 자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여부 관계없이 1년 이내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다. 본 연구는 자해와 자살 행동이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점(Harwood & Jacoby, 2000)에 기반하여, 스펙트럼에서 가장 치명적인 경험과 의도를 기준으로 각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을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분석에 앞서 SENS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Mplus 8.0 프로그램 및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때, Hu와 Bentler (1999)의 제안에 따라 χ^2 값, TLI 및 CFI .90 이상, RMSEA .10 이하의 기준으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별 자해 노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SENS 척도에서 4점 리커트 응답범주 중 2점(드물게) 이상에 응답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유형을 통해 자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노출의 유형이 자해 집단, 자살생각 집단, 자살시도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성별, 연령, 교육기관, 거주형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경제적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를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보정된 상태의 교차비(adjusted OR)와 신뢰구간(95% CI: Confidence Interval)을 산출하였다.

결 과

SENS의 2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SENS의 2요인 구조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chi^2(df=43)$, = 581.00, CFI=.93, TLI=.95, RMSEA=.13(90% CI .03~.12)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수를 적용

하여 CFA의 결과에서 오차 간 상관성이 높은 문항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간 공분산은 요인 내 측정 오차 간 수정지수가 30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결과 1번과 8번, 2번과 4, 5, 7번, 10번과 11번 문항에 공분산을 추가하였다. 문항 간 공분산을 고려한 SENS의 2요인 구조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는 $\chi^2(df=42)$, = 361.91, CFI=.96, TLI=.97, RMSEA=.09(90% CI .08~.10)로 수용가능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었다. 문항의 요인부하량(β)은 .72~.88로 Ford 등(1986)이 제시한 기준인 .40 이상을 충족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

표 1. SENS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유형	$\beta(B)$	S.E.	t
미디어 노출			
2. 인터넷, 블로그, SNS	.86(1.00)	.03	35.32***
3. 노래가사	.72(.84)	.02	33.78***
4. 영화	.77(.89)	.02	35.97***
5. 뉴스	.76(.88)	.02	35.98***
6. 유튜브	.76(.89)	.02	40.33***
7. TV(예: 영화나 뉴스, 유튜브를 제외한 시트콤, 드라마, 연속극 등)	.82(.95)	.02	44.03***
주변인 노출			
1. 친한 사람 중 자해를 했거나 하는 사람이 있음	.77(1.00)	.03	31.19***
8.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음	.75(.97)	.02	30.44***
9.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TV, 스마트폰, 영화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74(.96)	.03	25.98***
10. 다른 사람과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그 사람이 자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80(1.04)	.03	31.24***
11. 자해를 한 적이 있는 사람과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88(1.14)	.02	42.47***

*** $p < .001$.

기 위해 실시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는 전체집단과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전체 804명의 연구참여자 중 자해 및 자살 이력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657명으로 81.7%의 참여자가 자해, 자살생각 혹은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전체집단에서 남성이 72명(9.0%), 여성이 732명(91.0%),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에서 남성이 48명(7.3%), 여성이 609명(92.7%)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평균 연령은 전체집단과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표 2.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804)

구분	전체 집단 (N=804)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n=657)		
	n(M)	% (SD)	n(M)	% (SD)	
성별	남	72	9.0	48	7.3
	여	732	91.0	609	92.7
연령(만)		(15.0)	(1.6)	(15.0)	(1.6)
재학 중인 교육기관	초등학교 재학	11	1.4	8	1.2
	중학교 재학	448	55.7	370	56.3
	고등학교 재학	289	35.9	232	35.3
	대학교 재학	21	2.6	16	2.4
	학업중단	23	2.9	22	3.3
	기타(홈스쿨링 등)	12	1.5	9	1.4
거주 형태	양부모 거주	561	69.8	460	70.0
	한부모 거주(편부/편모)	154	19.2	127	19.3
	조부모 거주	27	3.4	23	3.5
	친척집 거주	8	1.0	5	0.8
	보호기관/시설 거주	4	0.5	4	0.6
	기타	50	6.2	38	5.8
가구의 경제적 수준	중산층 이하	90	11.2	69	10.5
	중산층	513	63.8	411	62.6
	중산층 이상	201	25.0	177	26.9
정신과 치료 경험	있음	171	21.3	160	24.4
	없음	633	78.7	497	75.6
심리상담 경험	있음	399	49.6	359	54.6
	없음	405	50.4	298	45.4

모두 15.0세였다. 재학 중인 교육기관은 전체 집단과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각각 중학교 재학이 448명(55.7%), 370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재학, 학업중단, 대학교 재학, 홈스쿨링 등 기타, 초등학교 재학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전체 집단,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각각 양부모 거주 561명(69.8%), 460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거주, 기타응답, 조부모 거주, 친척집 거주, 보호기관/시설 거주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중산층이 513명(63.8%), 411명(62.6%)으로 가장 많았고, 중산층 이상, 중산층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전체 집단, 자해 및 자살 관련 집단 각각 171명(21.3%), 160명(24.4%), 심리상담 경험은 399명(49.6%), 359명(54.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에 따른 빈도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미디어 노출 유형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자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658명, 81.8%). 그 다음은 뉴스, 노래가사, 유튜브, 영화, TV 순으로 나타났고, 빈도는 각 565명(70.3%), 492명(61.2%), 465명(57.8%), 462명(57.5%), 384명(47.8%)으로 나타났다.

주변인 노출 유형 중에서는 가장 많은 청소년이 친한 사람 중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 자해를 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472명, 58.7%). 이어서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458명, 57.0%),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음(452명, 56.2%), 자해를 한 적이 있는 사람과

표 3. 자해 사회적 노출의 유형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N=804)

유형	n(%)
미디어 노출	
인터넷, 블로그, SNS	658(81.8)
뉴스	565(70.3)
노래가사	492(61.2)
유튜브	465(57.8)
영화	462(57.5)
TV	384(47.8)
주변인 노출	
친한 사람 중 자해를 했거나 하는 사람이 있음	472(58.7)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458(57.0)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음	452(56.2)
자해를 한 적이 있는 사람과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370(46.0)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230(28.6)

주. 사회적 노출 척도의 각 문항에서 대해 '전혀 없음(1점)'을 제외한 2~4점에 응답한 사람들의 빈도임.

표 4.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해 접한 자해 경험이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참조집단: 비자해비자살 집단			참조집단: 자해 집단		
	자해 집단 Adjusted OR (95% CI)	자살생각 집단 Adjusted OR (95% CI)	자살시도 집단 Adjusted OR (95% CI)	자살생각 집단 Adjusted OR (95% CI)	자살시도 집단 Adjusted OR (95% CI)	자살시도 집단 Adjusted OR (95% CI)
미디어 노출						
미디어 유형	변수					
	인터넷, 블로그, SNS	1.54* (1.03-2.30)	1.70*** (1.29-2.23)	1.70*** (1.27-2.27)	1.10 (.77-1.58)	1.10 (.76-1.59)
	유튜브	.93 (.56-1.55)	1.03 (.73-1.47)	1.45* (1.01-2.08)	1.11 (.71-1.73)	1.55 (.99-2.42)
	TV	.75 (.44-1.30)	1.11 (.77-1.59)	.86 (.59-1.25)	1.47 (.90-2.39)	1.14 (.70-1.86)
	노래 가사	1.07 (.70-1.64)	1.25 (.93-1.68)	1.38* (1.02-1.87)	1.17 (.81-1.69)	1.29 (.89-1.86)
정보 유형	영화	1.14 (.73-1.79)	.84 (.61-1.15)	.83 (.60-1.15)	.73 (.49-1.10)	.73 (.49-1.10)
	뉴스	.83 (.53-1.32)	.92 (.67-1.26)	.96 (.69-1.34)	1.10 (.72-1.67)	1.16 (.76-1.76)
주변인 노출						
주변인 유형	친한 사람 중 자해를 했거나 하는 사람이 있음					
	1.03 (.56-1.89)	1.20 (.80-1.81)	1.04 (.68-1.59)	1.17 (.68-2.01)	1.01 (.58-1.74)	1.01 (.58-1.74)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음	.95 (.51-1.80)	1.09 (.70-1.69)	1.10 (.70-1.74)	1.14 (.65-2.01)	1.16 (.65-2.04)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음	1.38 (.84-2.27)	.95 (.65-1.39)	.92 (.63-1.36)	.69 (.45-1.05)	.67 (.44-1.02)
방법 유형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1.42 (.80-2.51)	1.94** (1.29-2.91)	2.69*** (1.79-4.06)	1.37 (.85-2.22)	1.90** (1.18-3.08)
	자해를 한 적이 있는 사람과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1.26 (.67-2.35)	1.05 (.67-1.65)	1.25 (.79-1.96)	.83 (.50-1.40)	.99 (.59-1.66)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함.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370명, 46.0%),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경험(230명, 28.6%) 순으로 나타났다.

비자해비자살 집단, 자해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및 주변인 노출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비자해비자살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미디어노출 유형 중 인터넷, 블로그, SNS에서 자해에 많이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해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54, 95% CI 1.03-2.30), 자살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70, 95% CI 1.29-2.23),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70, 95% CI 1.27-2.27)이 유의하게 높았다. 유튜브에서 자해에 많이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45, 95% CI 1.01-2.08)이 유의하게 높았고, 노래가사에서 자해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38, 95% CI 1.02-1.87)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변인 노출 유형 중에서는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1.94, 95% CI 1.29-2.91)과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adjusted OR 2.69, 95% CI 1.79-4.06)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해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자해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미디어 및 주변인 노출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고,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주변인 노출 유형으로는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이 확인되었다(adjusted OR 1.90, 95% CI 1.18-3.08).

논 의

본 연구는 13-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해 접한 자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해 관련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별 자해 노출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미디어 유형 중 인터넷, 블로그, SNS, 뉴스, 노래가사, 유튜브, 영화를 통해, 주변인 유형 중 자해를 하는 친한 사람이나 친구가 있고,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경험을 통해 자해를 접하게 되었다. TV, 자해를 한 사람과 자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경험은 각각 47.8%, 46.0%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고, 누군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본 경험은 28.6%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Zerkowitz 등(2017)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중 24~71%가 미디어를 통해, 5~45%가 주변인을 통해 자해를 자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출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실태결과를 통해 청소년 사회에서 미디어나 주변인을 통해 자해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자해 집단, 자살생각 집단, 자살시도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미디어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자해에 자주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해 집단에 속할 확률이 1.54배, 자살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이 1.70배,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1.7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블로그, SNS와 같은 미디어 유형이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Nesi et al., 2021; Pritchard et al., 2021). 인터넷, 블로그, SNS는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 중 유일하게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집단 모두에 영향을 미친 유형이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특성을 지닌 미디어가 자해 및 자살행동을 유발하는 데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인터넷, 블로그, SNS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사용률이 높은 매체이며, 익명성을 보장받고 청소년들이 자해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Lewis et al., 2012). 예컨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자해 방법,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는 방법 등이 공유되어 자해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Lewis & Baker, 2011; Tseng & Yang, 2015). 이와 유사하게 블로그는 점차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공유, 일기작성,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자해와 관련된 내용이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Dekmezian, 2015; Smith & Anderson, 2018). Margherita와 Gargiulo(2018)의 연구에 따르면, 자해 블로그 사용자들은 자신의 감정, 자해행동의 원인, 자해 후 느끼는 고통과 감정들을 상세히 기록할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지 않기 위해 자해를 시도한다는 등 자살에 관한 주제를 함께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도 자해 흉터, 상처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

나 자해에 대한 생각, 고통스러운 정서들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된 청소년은 자해를 모방하게 될 수 있다(박세훈, 유금란, 2021; Brown et al., 2018). 더불어 SNS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해 경험을 공유한 후 즉각적으로 인정과 공감을 받을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자해를 인증한 사진 속의 상처가 깊을수록 더 많은 댓글과 공감적 반응이 나타났다(Brown et al., 2018). 자해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가 높은 것은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동귀 등, 2016)에 비추어봤을 때,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자해를 공유하고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자살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에서 자해에 자주 노출될수록 자해 빈도가 증가하고(Zhu et al., 2016), 자해 빈도가 증가할수록 자해를 시도하는 방법이나 이유가 다양해져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Steakley-Freeman & Whitlock, 2016). 따라서 인터넷, 블로그, SNS 상에서 자해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자해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자해에 자주 노출될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1.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다른 매체에 비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해를 묘사하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데, 자해를 치명적으로 묘사한 영상은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Luxton et al., 2012; Robert et al., 2015)에서 본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의 자해 관련 시각적 콘텐츠는 강한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고(Jacob et al., 2017), 각성수준을 높여 자살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Houts et al., 2006). 특히, 유튜브

특성 상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자해에 대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살시도와의 연관성을 나타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래가사를 통해 자해에 자주 노출될수록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1.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래가사에서 자해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Whitlock et al., 2009b). 노래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 및 강화하며, 성찰과 삶의 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Nagaishi & Cipullo, 2017). 또한 일부 노래의 가사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Juslin et al., 2010). 실제로,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한 TV 프로그램에서 자해와 관련된 노래가 공개되면서 방영된 2018년 3월 말 전후 아동,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실 내원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Lee et al., 2023), 이는 노래가사를 통한 자해노출이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한편, 유튜브와 노래가사의 경우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으나 자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해의 사회적 노출 척도는 자해를 접할 수 있는 유형과 빈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 유형이 지닌 특성과 어떠한 특성이 자해,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튜브와 노래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해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심리적 변화를 경

험하여 자살시도로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TV, 영화, 뉴스를 통해 자해에 노출되는 것은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TV, 영화, 뉴스와 같은 미디어 유형은 소셜 미디어와 달리 일방향적인 형태의 특징을 지니는데, 앞서 논의한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인터넷, 블로그, SNS와 같은 양방향적인 특성을 가진 미디어 매체를 통한 자해 노출이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생각 및 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래가사의 경우 일방향적인 특성을 지닌 미디어임에도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는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각 미디어가 지닌 특성과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자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화에서 자해를 하는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록 자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Hasking & Rose, 2016)를 고려해봤을 때, 미디어에서 자해를 접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자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 유형을 살펴보면,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눌수록 비자해비자살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 집단에 속할 확률이 1.94배, 자살시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2.69배 높고, 자해집단에 비해 자살시도에 속할 확률이 1.9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것이 자살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

해의 정보가 어떻게 이야기 되고 확산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해와 자살행동이 표면상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유사해(Klonsky et al., 2013) 자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는 자해가 자살시도의 일환으로 오인될 수 있다. 또한, 자해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자해에 대한 오해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게 만들고 소외감, 낙인, 수치심, 죄책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자해행동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낙인을 찍는 태도는 자살시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Park et al., 2021)에서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반면, 자해를 하는 사람들과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해 집단 내에서 자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심각한 자해와 자살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Hasking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자해 자조집단을 이루는 경우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자해를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Boyce et al., 2018). 그러나, 청소년들이 비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자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경우, 어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해를 은폐하도록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더 심각한 자해,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Long, 2018).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중단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해를 하는 친한 사람 및 친구가 있거나 자해를 목격하는 경험은 자해, 자살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해를 하는 친한 사람 및 친구를 알고(Prinstein et al., 2010; Schwartz-Mette & Lawrence, 2019; Syed et al., 2020), 자해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경험(Pitman et al., 2023)이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연구설계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미디어 및 주변인 양상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미디어 혹은 주변인 양상 중 일부 요인만을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디어 및 주변인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터넷, 블로그, SNS, 유튜브, 노래가사와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자해 노출의 유형 중 자해, 자살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미디어와 주변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행동에 미디어와 주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인터넷, 블로그, SNS, 유튜브, 노래가사와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자해에 노출될수록 자해와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사회학습이론은 직접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 즉 모델링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Bandura, 1986). 특히 개인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유사하다고 느낄 경우 타인의 행동을 더 쉽게 모방하고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다(Hasking & Rose, 2016).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주변인이나 미디어를 통해 자해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접한 청소년들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해나 자살 시도를 고통스러운 정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통해 주변으로부터 관심이나 공감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해 및 자살 시도를 보상받는 행동으로 인식하여 행동을 지속하거나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주변인과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 이후 어떠한 경로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Hasking과 Rose(2016)는 개인이 특정 행동에 대해 어떤 기대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한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자해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개인이 예상하는 기대인 비자살적 자해 기대가 자해 행동에 미치는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자해를 통해 정서가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 타인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과 같은 자해 후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미디어, 부모, 또래 등을 통해 자해 행동에 대해 노출되었을 때 자해 행동으로부터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통해 개인의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asking & Rose, 2016).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지 못했으나, 자해 노출이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까지의 맥락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이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였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이 자해뿐만 아니라 자살생각과 시도에 영향을 미쳐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자해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일례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한 ‘국민 참여 자살유발 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에 따르면 자해, 자살 관련 정보 10건 중 7건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김우영, 2019), SNS 상에서 자해, 자살 관련 게시물 삭제와 같은 조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Fulcher et al., 2020). 또한 교내에서 자살사안이 발생하면 위기관리위원회가 소집되어 최소 2주 동안 특별상담실을 운영하여 자살 위기 학생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개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고홍월 등, 2019), 자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해가 학교 내 또래집단에 대한 모방, 동조 경향으로 유행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예방 및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 및 관리 전략의 차원에서 학교에서는 다층적 지원 시스템(Multi-Tiered System of Supports {MTSS})을 활용하여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예방(자해 행동 인식 교육 및 대응전략 안내), 자해 행동이 의심되는 학생들을 위한 2차 예방(소규모 집단상담 및 사회적 네트워크 파악과 개입), 그리고 심각한 자해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3차 예방(개별화된 집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직원에게 자해의 징

후를 인식하고 이를 보고하는 절차와 자해 행동의 위험성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Wester et al., 2017).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해 행동이 아닌 다른 긍정적인 대처 방식을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해 행동의 확산을 막아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Wester et al., 2017). 이러한 접근들은 자해 행동을 예방하고, 학교 내 자해가 유행처럼 확산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해와 자살의 상담 및 치료 현장에서는 청소년기 미디어 사용과 대인관계는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미디어 사용과 대인관계 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내담자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많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한 미디어 사용을 위해 청소년들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Steele et al., 2022). 자해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해에 대한 콘텐츠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러한 콘텐츠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콘텐츠에서 편향되거나 강조되거나 생략된 부분이 무엇일 것 같은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해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

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해 혹은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인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해 내담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및 주변인 유형을 확인했으나, 각 유형이 지닌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노출 척도는 단순히 노출 수준을 측정했으며, 미디어 및 주변인을 통한 자해 노출이 청소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단순한 노출 수준을 넘어, 노출된 유형에 따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어 주변인 및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과 자해, 자살생각, 자살시도 간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인 및 미디어를 통한 자해 노출이 자해, 자살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며,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표본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통해 본 연구결과가 반복검증 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홍월, 이해은, 함은혜, 김지연, 최지현 (2019). Wee센터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가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권혁진 (2014).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지적 요인의 탐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 양모현, 박효은, 김지윤, 이동훈 (2023). 자해와 자살행동 메타분석 연구 개관: 생물심리사회모델에 따른 위험 및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15(1), 29-55.
- 김소정, 고그림 (2020).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해와 SNS 사용: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인지행동치료*, 20(3), 247-275.
- 김우영 (2019. 05. 12.). ‘자해(自害)’ 가르치고 배우는 청소년들...인증샷 넘쳐나는 SNS.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2/2019051200771.html
- 김지윤 (2019). 성인의 비자살적 자해 잠재계층 유형의 위험요인과 심리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은, 이동훈 (2024).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가 자살적 자해로 이행 및 중단된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2), 607-637.
- 박세훈, 유금란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자해 및 자살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429-1455.
- 여성가족부 (2024. 01. 15). 2024년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더욱 늘려. *정책뉴스*.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sSn=711711
- 이동귀, 함경애, 배병훈 (2016). 청소년 자해행동: 여중생의 자살적 자해와 비자살적 자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71-1192.
- 이정현 (2023. 11. 24). 머스크 X, 대체 뭐하나... 자해 정보, 우린 삭제도 불가.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902878>
- 질병관리청 (2023). 2022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s://www.kdca.go.kr/injury/biz/injury/recsroom/statsSmMain.do>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text rev.)*. American Psychiatric Press.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 Hall.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oyce, M., Munn-Giddings, C., & Secker, J. (2018). ‘It is a safe space’: self-harm self-help groups. *Mental Health Review Journal*, 23(1), 54-63.
- Brown, R. C., Fischer, T., Goldwisch, A. D., Keller, F., Young, R., & Plener, P. L. (2018). # cutting: Non-suicidal self-injury (NSSI) on Instagram. *Psychological Medicine*, 48(2), 337-346.
- Chan, S., Denny, S., Fleming, T., Fortune, S., Peiris-John, R., & Dyson, B. (2018). Exposure to suicide behaviour and individual risk of

- self-harm: Finding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New Zealand high school survey.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52(4), 349-356.
- Daine, K., Hawton, K., Singaravelu, V., Stewart, A., Simkin, S., & Montgomery, P. (2013). The power of the web: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on self-harm and suicide in young people. *PLoS one*, 8(10), e77555.
- Dekmejian, G. (2015). Blogging as a Platform for Self-Expression: The Transformation of Blogs Over Time. *Journal of New Media & Culture*, 5(2), 45-58.
- Ford, J. K., MacCallum, R. C., & Tait, M. (1986). The applic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pplied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39(2), 291-314.
- Fulcher, J. A., Dunbar, S., Orlando, E., Woodruff, S. J., & Santarossa, S. (2020). # selfharm on Instagram: understanding online communities surrounding non-suicidal self-injury through conversations and common properties among authors. *Digital Health*, 6.
- Harris, L. M., & Ribeiro, J. D. (2021). Does fearlessness about death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NSSI and suicide attempts? A longitudinal study of over 1,000 high-risk individua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9(3), 176-187.
- Harwood, D., & Jacoby, R. (2000). *Suicidal behaviour among the elderly*.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275-291.
- Hasking, P., Andrews, T., & Martin, G. (2013). The role of exposure to self-injury among peers in predicting later self-inju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10), 1543-1556
- Hasking, P., & Rose, A. (2016). A preliminary application of social cognitive theory to nonsuicidal self-inju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8), 1560-1574.
- Hawton, K., Simkin, S., Deeks, J. J., O'Connor, S., Keen, A., Altman, D. G., Philo, G., & Bulstrode, C. (1999). Effects of a drug overdose in a television drama on presentations to hospital for self poisoning: time series and questionnaire study. *Bmj*, 318(7189), 972-977.
- Heath, N. L., Baxter, A. L., Toste, J. R., & McLouth, R. (2010). Adolescents' willingness to access school-based support for nonsuicidal self-injury.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5(3), 260-276.
- Houts, P. S., Doak, C. C., Doak, L. G., & Loscalzo, M. J. (2006). The role of pictures in improving health communication: a review of research on attention, comprehension, recall, and adherence.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1(2), 173-19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cob, N., Evans, R., & Scourfield, J. (2017). The influence of online images on self-harm: A qualitative study of young people aged 16-24. *Journal of Adolescence*, 60, 140-147.
- Jarvi, S., Jackson, B., Swenson, L., & Crawford, H.

- (2013). The impact of social contagion on non-suicidal self-injury: A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7*(1), 1-19.
- Juslin, P. N., Liljeström, S., Västfjäll, D., & Lundqvist, L.-O. (2010). How does music evoke emotions? Exploring the underlying mechanisms. In P. N. Juslin & J. A. Sloboda (Eds.), *Handbook of music and emotion: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pp. 605-642). Oxford University Press.
- Klonsky, E. D., May, A. M., & Glenn, C. R.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uicidal self-injury and attempted suicide: converging evidence from four sam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1), 231.
- Lee, T., Park, H., Ryu, J. M., Kim, N., & Kim, H. W. (2023). The Association Between Media-Based Exposure to Nonsuicidal Self-Injury and Emergency Department Visits for Self-Har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62*(6), 656-664.
- Lewis, S. P., & Baker, T. G. (2011). The possible risks of self-injury web sites: a content analysi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5*(4), 390-396.
- Lewis, S. P., Heath, N. L., Michal, N. J., & Duggan, J. M. (2012). Non-suicidal self-injury, youth, and the Internet: What mental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know.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6*(1), 13.
- Lewis, S. P., & Seko, Y. (2016). A double edged sword: A review of benefits and risks of online nonsuicidal self injury activiti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2*(3), 249-262.
- Lloyd, E. E., Kelley, M. L., & Hope, T. (1997). *Self-mutil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provisional prevalence rates*. In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Behavioral Medicine, New Orleans, LA.
- Long, M. (2018). 'We're not monsters... we're just really sad sometimes': hidden self-injury, stigma and help-seeking. *Health Sociology Review, 27*(1), 89-103.
- Luxton, D. D., June, J. D., & Fairall, J. M. (2012). Social media and suicide: a public health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S2), S195-S200.
- Margherita, G., & Gargiulo, A. (2018). A comparison between pro-anorexia and non-suicidal self-injury blogs: From symptom-based identity to sharing of emotions. *Psychodynamic Practice, 24*(4), 346-363.
- Mars, B., Heron, J., Klonsky, E. D., Moran, P., O'Connor, R. C., Tilling, K., Wilkinson, P., & Gunnell, D. (2019). What distinguishes adolescents with suicidal thoughts from those who have attempted suicide? A population based birth cohort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0*(1), 91-99.
- Mitchell, K. J., Wells, M., Priebe, G., & Ybarra, M. L. (2014). Exposure to websites that encourage self-harm and suicide: Prevalence rates and association with actual thoughts of self-harm and thoughts of suicid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dolescence, 37*(8),

- 1335-1344.
- Nagaishi, K. Y., & Cipullo, M. A. T. (2017). Song as a psychologist's work resource: a review of published articles. *Boletim de Psicologia*, 67(146), 67-82.
- Nesi, J., Burke, T. A., Bettis, A. H., Kudinova, A. Y., Thompson, E. C., MacPherson, H. A., Fox, K. A., Lawrence, H. R., Thomas, S. A., Wolff, J. C., Altemus, M. K., Soriano, S., & Liu, R. T. (2021). Social media use and self-injurious thoughts and behavio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7, 102038.
- Nixon, M. K., Cloutier, P., & Jansson, S. M. (2008). Nonsuicidal self-harm in youth: a population-based survey. *Cmaj*, 178(3), 306-312.
- Nock, M. K. (2009). Why do people hurt themselves? New insights into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injur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 78-83.
- Park, Y., Mahdy, J. C., & Ammerman, B. A. (2021). How others respond to non suicidal self injury disclosur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31(1), 107-119.
- Pirkis, J. (2009). Suicide and the media. *Psychiatry*, 8(7), 269-271.
- Pitman, A., Lowther, M., Pike, A., Davies, J., De Cates, A., Buckman, J. E., & Robinson, O. (2023). The influence of peer non-suicidal self-harm on young adults' urges to self-harm: experimental study. *Acta Neuropsychiatrica*, 1-13.
- Plager, P., Zarin-Pass, M., & Pitt, M. B. (2019). References to Netflix' "13 Reasons Why" at clinical presentation among 31 pediatric patients.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13(3), 317-327.
- Prinstein, M. J., Heilbron, N., Guerry, J. D., Franklin, J. C., Rancourt, D., Simon, V., & Spirito, A. (2010). Peer Influence and Nonsuicidal Self Injury: Longitudinal Results in Community and Clinically-Referred Adolescent Samp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5), 669-682.
- Pritchard, T. R., Lewis, S. P., & Marcincinova, I. (2021). Needs of youth posting about nonsuicidal self-injury: a time-trend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8(3), 532-539.
- Robert, A., Suelves, J. M., Armayones, M., & Ashley, S. (2015). Internet use and suicidal behaviors: internet as a threat or opportunity?. *Telemedicine and e-Health*, 21(4), 306-311.
- Schwartz-Mette, R. A., & Lawrence, H. R. (2019). Peer socialization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adolescents' close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7(11), 1851-1862.
- Sinyor, M., Williams, M., Tran, U. S., Schaffer, A., Kurdyak, P., Pirkis, J., & Niederkrotenthaler, T. (2019). Suicides in young people in Ontario following the release of "13 Reasons Why".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64(11), 798-804.
- Smith, A., & Anderson, M. (2018). Social Media Use in 2018: Demographics and Statistics.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from Pew Research Center.
- Steakley-Freeman, D., & Whitlock, J. (2016). The function accumulation model of NSSI. *In*

-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Self-Injury.*
- Steele, M. A., Power, J., & Smith, H. P. (2022).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non-suicidal self-injury on YouTube.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43*(9), 808-817.
- Steele, S. J. (2023). Social Contagion of Nonsuicidal Self-Injury. Lloyd-Richardson, Elizabeth E., Imke Baetens, & Janis L. Whitlock (Eds.), *The Oxford Handbook of Nonsuicidal Self-Injury*, Oxford Library of Psychology
- Syed, S., Kingsbury, M., Bennett, K., Manion, I., & Colman, I. (2020). Adolescents' knowledge of a peer's non-suicidal self injury and own non suicidal self injury and suicidalit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42*(5), 366-373.
- Tang, W. C., Lin, M. P., You, J., Wu, J. Y. W., & Chen, K. C. (2023). Prevalence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of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Current Psychology, 42*(20), 17270-17279.
- Tseng, F. Y., & Yang, H. J. (2015). Internet use and web communication networks,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forms of suicidal and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adolescents: Different patterns between gende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5*(2), 178-191.
- Victor, S., & Klonsky, E. D. (2018) Understanding the social context of adolescent nonsuicidal self-injur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4*(12), 2107-2116.
- Wester, K. L., Wachter Morris, C., & Williams, B. (2017). Nonsuicidal self-injury in the schools: a tiered prevention approach for reducing social contagion.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1*(1), 1096-2409.
- Whitlock, J., Powers, J. L., & Eckenrode, J. (2009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injurious behavior and suicidal behavior in a young adult population.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3*(7), 645-652.
- Whitlock, J., Purington, A., & Gershkovich, M. (2009b). "Media, the Internet, and Nonsuicidal Self-Injury." In M. K. Nock (Ed.), *Understanding NonSuicidal Self-Injury: Origin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139-15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elkowitz, R. L., & Cole, D. A. (2014). Assessing media and interpersonal exposure to non-suicidal self-injury: The Social Exposure to NSSI Scale. In *Abstract presented at Suicide and Self-Injury Group Data Blitz, Association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Annual Meeting.*
- Zelkowitz, R. L., Porter, A. C., Heiman, E. R., & Cole, D. A. (2017). Social exposure and emotion dysregulation: Main effects in relation to nonsuicidal self-injury. *Journal of Adolescence, 60*(1), 94-103.
- Zhu, L., Westers, N. J., Horton, S. E., King, J. D., Diederich, A., Stewart, S. M., & Kennard, B. D. (2016). Frequency of exposure to and engagement in nonsuicidal self-injury among inpatient adolescen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20*(4), 580-590.

원 고 접 수 일 : 2024. 08.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9. 19

게재결정일 : 2024. 10. 07

The Impact of Media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posure to Self-Injury on Self-Injury and Suicide Behaviors

Bo Ra Lee

Seong Yeon Kim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 degree

Doctoral candidate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exposure to non-suicidal self-injury (NSSI) on NSSI, suicidal ideation (SI), suicide attempts (SA) among 804 youths aged 13 to 19. Frequency analysis showed that 47.8% to 81.8% of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NSSI through media and 28.6% to 58.7% throug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frequent exposure via the internet, blog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SNS) was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NSSI, SI, and SA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More frequent exposure to NSSI via YouTube and music lyrics was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being in the SA group compared to the NSSI group.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requent discussions about NSSI were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being in the SI and SA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nd in the SA group compared to the NSSI group.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Youth, Non-Suicidal Self-Injury,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 Social Exposure